노란 상자

* 글: 박효미
* 그림: 이광익
* 출판사: 웅진주니어
* 정가: 10,000원
* 분량: 132쪽
* 대상: 초등 6학년

· 책 소개

『노란 상자』는 자신을 드러낼 방법을 모르던 아이들이 서서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화입니다. 주인공 대희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곤충을 관찰하고 보살피는 데 관심이 큰 소심한 아이입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재량 시간에 노란 상자를 나눠 주며 그 안에 자기가 넣고 싶은 걸 넣고 관찰해 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은 마음에 비슷한 것들을 넣었던 아이들은 점점 노란 상자에 마음이 기울게 되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넣고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의 눈에 띄는 걸 싫어하는 대희 역시 우연한 기회에 달걀을 넣게 되고 에디슨이냐며 놀리는 아이들의 행동에도 아랑곳 않고 노란 상자에 알전구를 설치하고 젖은 수건을 넣어 습도를 조절하면서 온갖 정성을 쏟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대희는 반 친구들과 점점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 주요 독후활동

노란 상자		
	책 속으로	① 대희의 실험실 ② 대희의 엄마와 아빠 ③ 노란 상자 ④ 남궁대희, 남궁뎅이
	토론&논술	가족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
	창의융합	① 달걀 부화 관찰 일지 ② 나만의 노란 상자

[독서워크북]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제목, 앞뒤 표지, 머리말(작가의 말), 차례

-책의 제목, 앞뒤 표지의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책의 머리말을 읽고 작가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주제를 파악해봅시다.
-책의 차례를 살펴보고 책에서 나올 이야기의 내용을 예상해봅시다.

1. 책의 앞표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고 세 명의 등장인물은 각각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글로 표현해보세요.

등장인물 1	
등장인물 2	
등장인물 3	

2. 뒤표지의 그림과 글을 자세히 살펴보고 '노란 상자'란 무엇일지 예상해보세요.

⇨

3. 책의 4~5쪽 '작가의 말'을 읽고, 이 책의 주제와 밀접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낱말 또는 문장을 찾아 옮겨 써보세요.

⇨

4. 책의 6~7쪽 차례를 살펴보고,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상상해보세요.

⇨

독서 중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을 즐기며 읽기

- 공감하는 내용 정리하며 읽기
- 인상 깊은 내용 정리하며 읽기
- 자신의 생각을 쓰며 읽기
-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떠올리며 읽기

※ 『노란 상자』를 읽으면서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내용, 인상 깊은 내용, 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등을 정리해 봅시다.

공감하는 내용	공감하지 않는 내용
•	•
•	•
인상 깊은 내용	**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	•
•	•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	
•	

독서 후 책 속으로 ① 대희의 실험실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가방을 집 안쪽으로 던지고 계단을 올랐다. 두 계단씩 세 걸음만 올라가면 실험실이다. 내 실험실은 3과 2분의 2층에 있다. 3층에서 절반 더 올라간 자리, 나는 분수의 덧셈을 배우다가 3과 2분의 1층이라는 멋진 말을 생각해 냈다. 3층에서 옥상으로 가는 계단참, 3과 2분의 1층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다. 앞집 할머니도, 우리 엄마 아빠도, 집이 있는 3층까지만 올라온다. 옥상 문은 늘 꽁꽁 닫혀 있다. ㉠실험실은 낡은 대나무 발로 잘 둘러놨다. 겉으로 봐서는 오래된 쓰레기 더미 같다.

(나) "저기, 남궁뎅, 아니 대희야."

표본을 보고 있는데, 아래서 누가 불렀다. 102호에 사는 김선규가 우리 집 문 앞에서 날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얼른 서랍을 닫고 대나무 발을 둘러쳤다. 내 실험실을 보여 주고 싶지 않았다.

"올라가도 돼?" 내가 머뭇거리는데 김선규가 성큼성큼 올라왔다. 내 실험실에, 내 구역에 함부로 올라와 버렸다. 김선규가 내 등 뒤를 힐끔거렸다.

1. 대희의 실험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

2. 대희가 실험실을 ㉠처럼 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참고해서 파악해보세요.

⇨

3. 대희의 실험실은 [베란다 ⇨ 3과 2분의 1층 ⇨ 현관 ⇨ 베란다]의 순서로 옮겨졌습니다. 각 위치로 이동하게 된 이유 또는 계기가 드러나는 부분을 책에서 찾아보세요.

베란다에서 3과 2분의 1층으로 옮기게 된 이유	
3과 2분의 1층에서 현관으로 옮기게 된 이유	
현관에서 베란다로 옮기게 된 이유	

독서 후 책 속으로 ② 대희의 엄마와 아빠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엄마 오기 전까지 숙제도 학습지도 다 마쳐야 한다. 엄마는 내 할 일이 늦게까지 남아 있는 걸 끔찍하게 싫어한다. 피곤한데 신경 쓰인다며 짜증을 낸다. -중략-

"돈을 빨리 벌어서 돈 받는 일을 그만해야 하는데, 대체 왜 행운은 안 오는 거야? 벌써 7년째 행운 연립에서 살고 있는데."

엄마는 이제 우리 집에 화풀이했다. 행운 연립 302호인 우리집에 엄마는 불만이 많았다.

(나) "저기요, 아빠. 달걀 있잖아요." 아빠한테 묻고 싶었다. 달걀을 어떻게 부화시킬 수 있는지, 암탉처럼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논하고 싶었다.

"이런, 포도주 담가 놓은 게 여기 있었네.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 아이고, 사라진 호미도 여기 있네."

아빠는 내 말은 듣지도 않았다. 구부정하게 등을 구부린 채 물건들만 이리저리 옮겼다.

(다) 학교에서 오니 아빠가 집에 있었다. 요즘은 부쩍 그런 날이 많다. 식물들을 집으로 옮긴 다음부터 그렇다.

"비디오 가게 문 닫았어요?"

"어? 비디오 가게? 어차피 손님도 별로 없어. 우리 모네의 가게에는 아주 옛날 비디오들뿐이라는 것 너도 알잖냐. 그게 꼭 필요한 사람은 내일이라도 다시 올 테고. -중략-"

(라) 엄마 아빠가 모처럼 함께 집에 있었다. 아빠는 베란다에서 화초를 둘러보며 전화를 받고 있었다. "여보, 내가 무료 항공권에 당첨됐대." 아빠가 소리쳤다.

"무료 항공권? 당신 바보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엄마가 소리쳤지만 아빠는 계속 통화를 했다.

"전화기 이리 줘 봐." 다짜고짜 엄마는 전화기를 빼앗듯 가져갔다.

"이보세요, 이런 식으로 선량한 시민들 우롱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당신들 전화번호는 어디서 수집했죠? 정보 통신법에 위배되는 거 알기나 해요?" 엄마 목소리가 높아졌다.

1. 윗글의 말과 행동을 통해 대희의 엄마, 아빠에 대해 파악한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대희의 엄마	대희의 아빠

2. 여러분이 대희라면, 이런 엄마와 아빠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독서 후 책 속으로 ③ 노란 상자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들고 있던 책을 교탁에 내려놓고, 선생님은 반 전체를 둘러보았다.

"노란 상자에 자기가 원하는 걸 넣어 봐. 딴 반은 그냥 과제만 제출하는데, 우리 반은 일부러 노란 상자를 나눠 준 거야. 어른이 시키는 것, 선생님이 좋아할 것 같은 것, 남 따라 하는 것. 이런 것 말고! 자기 생각! 자기 것! 이제 4학년도 끝나 가는데 자기가 생각한 걸 행동에 옮겨 보자는 거야." -중략-

선생님은 칠판 귀퉁이에 이렇게 썼다. "노란 상자-날마다 관찰, 기록할 것."

이제는 기록까지 해야 한다.

(나) "노란 상자는 다 챙겨 가라. 방학 때 좀 더 해도 괜찮을 거야. 그걸 방학 과제로 내도 되고. 그동안 재밌었지?" 선생님이 묻자 아이들이 "네!" 하고 소리쳤다.

"다 끝낸 사람도 있고, 하다 만 사람도 있고. 성공하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고."

'실패'라는 말이 내 뒤통수를 쳤다.

"㉠하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야. 그동안 시키는 것만 하다가 너희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만으로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자꾸 실패라는 말만 떠올랐다. 그러니까 나는 실패한 것이다. ㉡우리 선생님도, 과학 선생님도 도와줬고, 아이들도 지켜보고 도와줬는데, 내 알은 깨어나지 못했다. 이제 그걸 인정해야 할 때였다.

1. 선생님이 처음 노란 상자를 반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때, 어떤 과제를 냈을지 써보세요.

⇨

2. (나)의 밑줄 친 ㉠에서 말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책에서 찾아 써보세요.

(예) 선규는 사마귀를 노란 상자에 넣고 한자 학습지를 꺼냈다.

•

•

•

3. (나)의 밑줄 친 ㉡에서 말한 '선생님과 친구들이 대희의 노란 상자를 지켜보고 도와준 것'과 관련된 내용을 책에서 찾아 정리해보세요.

(예)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에게 말해서 대희의 상자를 과학실에 둘 수 있게 해주었다.

•

•

•

독서 후 책 속으로 ④ 남궁대희, 남궁뎅이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남궁뎅이였다. 그날, 나는 선생님 옆에 앉아 아이들을 보며 공부했다. 벌 받는 중이었는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생각도 안 난다. 수많은 눈빛이 온종일 날 쏘아보던 일만 생생하다. 나는 얼어붙었다. 종일 선생님 옆에 앉아 꼼짝하지 못했다. 아니, 꿈틀거리지도 못 했다. 선생님 몸에서 화장품 냄새가 진하게 났다는 것만 기억난다.

마침내 수업이 다 끝나고 의자에서 일어섰을 때, 따뜻한 물이 가랑이 사이로 흘러내렸다. 교실 바닥으로 오줌이 번져 갔다. 그 뒤는 잘 기억도 안 난다.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어렴풋하다.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자꾸만 달아나고 싶었다. 친구들한테서, 선생님한테서, 학교에서.

(나) "야, 남궁뎅이 미안해." 남궁뎅이라는 말을 듣자 내 몸 구석구석 숨어 있던 열기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남궁뎅이라고 하지 마! 싫단 말야!" 김덕형이 깜짝 놀라 입을 쩍 벌렸다.

"난 남궁대희라고!" 나는 나무 상자에 알전구를 넣고 내 자리로 와 버렸다.

"아, 짜식. 되게 신경질 내네. 남궁이니까 남궁뎅이지, 그럼 뭐냐? 황민재처럼 황소라고 해?"

김덕형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내 자리까지 들려왔다.

남궁이니까 남궁뎅이라고? 그럼 여태 내 별명이 '남궁'이란 내 성 때문이었단 말이야?

"야, 남궁! 화 풀어라. 남궁뎅이라고 안 하고 앞으로 남궁이라고 하면 되잖아."

김덕형이 소리쳤다. 나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얼떨떨했다. 여태 그 일 때문에 남궁뎅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생각했다. 2학년 봄날 오줌 쌌던 그날부터라고 나는 지레짐작했다. 그런데 지금 김덕형은 내가 남궁이니까, 남궁뎅이라고 말했다.

1. 대희의 별명이 '남궁뎅이'가 된 것에 대하여 대희가 생각한 이유와 실제 이유를 파악하여 써보세요.

대희가 생각한 이유	vs	실제 이유

2. (가)에서 대희가 2학년 때 겪은 것과 같은 일을 여러분의 친구가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싶나요? 그 이유도 함께 써보세요.

⇨

3. 여러분도 (가)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마음이나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소개해보세요.

⇨

[독서워크북]

독서 후 토론&논술_ 가족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

※ 다음은 『노란 상자』의 본문 일부입니다. 이 글을 읽고 참고하여, 아래 제시된 주제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가) "부자지간에 잘들 하시네요. 아비나 아들이나 날마다 쓰레기를 주워 들이니……. 대체 행운 연립이라고 누가 이름 지은 거야? 행운은커녕 쓰레기만 잔뜩 들어오는데." 아빠를 탓하고 나를 탓하더니 이제 엄마는 집을 탓했다.

(나)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눈물이 찔끔 맺히고 말았다.

"너 그런 식으로 말할래? 엄마 아빠보다 저것들이 소중해?" 엄마가 말했다.

"엄마 아빠 다 바쁘잖아요." 콧물이 흘러내렸다.

"대희야.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엄마는 마트에서 일하고, 아빠는 비디오 가게 하느라 바쁘고." 아빠가 말했다.

"나도 알아요. 그래도 버릴 수 없어요." 나는 콧물을 들이마셨다.

"자꾸 말대꾸할래? 엄마한테 반항하는 거야?" 내가 몇 마디만 해도 엄마는 늘 이렇게 몰아갔다. 어른한테 말대꾸하는 건 버릇없는 짓이라고 입 다물라고 했다.

"내 거예요. 나한테는 소중해요." 이 말이 절로 되풀이됐다. 콧물이 자꾸만 흘러내렸다.

(다) "어서 말해 보라고! 이런 게 가족보다 더 소중하니?" 엄마가 다그쳤다.

"얘네들이 날 도와줘요. 엄마 아빠 없을 때."

"그게 무슨 말이야? 벌레가 뭘 도와주는데?"

"그날도 얘벌레만 내 옆에 있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툭 이렇게 내뱉고 말았다. 아빠가 내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날이라니? 대희야, 무슨 말이야?" 아빠 목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오줌 쌌던 날이요." 나는 고개를 숙여 버렸다.

주제: 가족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

나의 주장: 나는 가족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있다 / 없다)고 생각한다.

근거:

독서 후 창의융합 ① 달걀 부화 관찰 일지

※ 대희는 노란 상자에 달걀을 넣고 부화시키려고 했어요. 대희와 함께 달걀 부화 관찰 일지를 써보세요.

<그림>

준비물	
실험 기간	
부화 조건	
실험 과정과 관찰 내용	
알게 된 점	
실험 결과와 느낀 점	
나에게 한 마디	

독서 후 창의융합 ② 나만의 노란 상자

※ 여러분이 대희네 반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나눠 준 노란 상자에 무엇을 넣고 싶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돌보고 관찰하며 조사하고 탐구할 수 있는 대상을 고른 다음, 노란 상자에 넣고 열흘 간 집중 탐구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 나의 노란 상자 안에 넣을 것:
- 이것을 선정한 이유:

◎ 집중 탐구 계획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7일째	
8일째	
9일째	
10일째	

■ 독서 전

1. (예시답안)

등장인물 1	안경을 쓴 아이는 거대한 사마귀 등에 타고 있다.
등장인물 2	축구복을 입고 축구화를 신은 아이가 웃으면서 축구공을 뻥 차고 있다.
등장인물 3	불이 빨간 아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몸을 앞으로 숙여 알들을 품에 안고 있다.

2. (예시답안) 달걀을 병아리로 부화시키는 상자인 것 같다.
3. (예시답안) 내가 만져서, 나 때문에 죽은 거야. / 때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을 둘째는 이 생명들을 보살피면서 나누는듯하다. 등
4. (예시답안) 부모님 몰래 실험실을 만들고 그곳에서 달걀을 병아리로 부화시키는 실험을 하다가 알의 일부는 깨져 버리고 일부는 부화를 하지만, 부화한 병아리가 곧 죽어서 헤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

■ 독서 중

(예시답안)

공감하는 내용	공감하지 않는 내용
• 우리 엄마도 일을 하시는데,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오셨을 때 내가 숙제를 안했거나 집이 더러우면 엄청 야단을 치신다.	• 나는 선생님께 혼이 나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서, 대희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인상 깊은 내용	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 생명이 되려다 만 불쌍한 알이라며 부화하지 못한 알을 친구들과 함께 묻어주러 갈 때 마음이 찡했다.	• 나도 김선규처럼 다른 친구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 나도 친구와 싸워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셔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대희의 마음이 이해가 갔다.	

■ 독서 후

◎ 책 속으로 ① 대희의 실험실

1. (예시답안) 대희네 빌라 3층에서 옥상으로 가는 계단참(3과 2분의 1층)에 있다.
2. (예시답안) 실험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이다.
3. (예시답안)

베란다에서 3과 2분의 1층으로 옮기게 된 이유	60~61쪽 올봄에 불만 내지 않았어도 베란다는 아직 내 실험실일 것이다. 그날 나는 어떤 약품에 식초를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중략- 그날 내 실험실은 쫓겨났다. 실험 도구들은 쓸데없이 일만 저지르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
3과 2분의 1층에서 현관으로 옮기게 된 이유	103쪽 계단참은 어둑어둑하고, 써늘했다. 손난로라도 데워 올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손에 입김을 불어넣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점점 추워지는 이곳이 싫었다. 느닷없이 몸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솟았다. 더는 내 실험 도구들을 계단참에 두고 싶지 않았다. 내가 아끼는 것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 생각하니 끔찍했다.
현관에서 베란다로 옮기게 된 이유	109~113쪽 “내 거예요. 나한테는 소중해요.” 이 말이 절로 되풀이됐다. 콧물이 자꾸만 흘러내렸다. “대희야, 아빠가 도와줄게. 비켜 봐.” 아빠가 내 어깨를 잡았다. -중략- “그때부터 키웠어요. 지금까지.” 후두둑. 눈물 몇 방울이 한꺼번에 떨어졌다. -중략- “대희야. 진작 말하지 그랬어. 여태 몰랐잖아.” 아빠가 내 짐을 베란다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 책 속으로 ② 대희의 엄마와 아빠

1. (예시답안)

대희의 엄마	대희의 아빠
• 일이 힘들고 피곤해서 짜증을 잘 낸다. • 돈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만이 많다. • 아빠가 어리숙하다고 생각한다.	• 식물에 관심이 많다. • 대희에게 관심이 부족하다. • 경제관념과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없다. • 엄마에게 무시당한다.

2. (예시답안)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주 짜증과 화를 내고 늘 불만이 많은 엄마를 보는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자신을 이해해주거나 다정하게 대해 주지 않는 것에 서운하고 슬플 것 같다.	엄마가 일하느라 힘들고 지치는 데다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도 아빠가 돈을 열심히 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에 답답하고 화가 날 것 같다. 식물에만 애정을 갖고, 가족들에겐 무관심한 것에도 많이 서운할 것 같다.

◎ 책 속으로 ③ 노란 상자

1. (예시답안) 노란 상자에 자신이 집중 탐구할 대상을 넣고, 돌보면서 관찰할 것.
2. (예시답안)
• 선규는 알을 낳고 죽은 사마귀를 표본으로 만들기로 했다.
• 김덕형은 붉은 악마와 해외로 진출한 축구 선수들을 조사하고 월드컵이 열렸던 나라들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 이은지는 우리나라의 집부터 유럽의 집과 성을 탐구했다. 등
3. (예시답안)
• 김선규와 김덕형이 달걀을 가져와서 대희의 상자 안에 함께 넣었다.
• 과학 선생님이 온도계를 주고, 튼튼하고 무거운 상자로 바꿔 주었다.
• 김덕형이 상자 속 습도 조절을 위해 젖은 수건을 바꾸기를 맡아주었다. 등

◎ 책 속으로 ④ 남궁대희, 남궁뎅이

1. (예시답안)
• 대희가 생각한 이유 : 2학년 때 학교에서 바지에 오줌을 쌌기 때문에 친구들이 놀리는 의미로 '남궁뎅이'라는 별명을 붙였을 것이다.

• 실제 이유 : 대희의 성이 '남궁'씨여서 '남궁대희'를 '남궁뎅이'라고 불렀다.
2. (예시답안) 나라면 내 옷으로 엉덩이를 가려주고 집에 데려다 줄 것이다. 너무 놀라고 당황했을 텐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더 창피하고 어쩔 줄을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3. (가이드) 잊고 싶은 기억,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게 된 일 등 각자의 경험을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답안 생략.
(참고) 트라우마는 한 때의 안 좋았던 사건이나 기억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라고 해도 자동차가 급정거하는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받았던 강력한 충격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쳤고 그 상황이나 분위기, 이미지가 반복될 때 사건 당시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 후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트라우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토론&논술_ 가족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

(가이드) 글쓰기 훈련이 잘 된 학생의 경우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보도록 지도해 주세요.
(예시답안1)

나는 가족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희가 너무 놀라고 힘들었을 때 엄마도 아빠도 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를 좋아하게 된 것이다. 꼭 벌레가 아니더라도 늘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친구나 선생님이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예시답안2)

나는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엄마와 아빠는 일을 하시느라 관심을 갖지 못했을 뿐 사실은 대희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다 알고,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대희를 가장 사랑해주는 것은 가족들일 것이다.

◎ 창의융합 ① 달걀 부화 관찰 일지

(예시답안)

그림 생략.

준비물	유정란, 불이 나지 않을 박스, 열을 낼 전구 등
실험 기간	21일 정도
부화 조건	온도는 37도 정도로 맞춘다. 습도도 적당히 유지한다. 달걀을 굴려준다.
실험 과정과 관찰 내용	전구를 달아서 온도를 맞추었다. 물에 적신 수건으로 습도를 유지했다. 알 안에서 핏줄 같은 게 번개처럼 갈라져 있었다.
알게 된 점	알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습도도 중요하고 알을 굴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새로 알게 되었다.
실험 결과와 느낀 점	부화 실패(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았다.)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나에게 한 마디	알 부화엔 실패했지만 좋은 친구들을 얻었으니 실망하지 말자. 더 공부하고 잘 준비해서 다시 도전해 보자!

◎ 창의융합 ② 나만의 노란 상자

(가이드) 탐구 결과 발표까지 주어진 시간이 열흘이라고 가정하고, 탐구 주제 정하기부터 조사, 관찰, 자료 정리까지 모든 과정을 열흘에 마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답안 생략.